

【특집 · 표준어 정책, 비판적 접근과 대안 모색】

표준어 규범과 현실 - ③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

안상순

금성출판사 사진실장

1. 표준어 규범의 어려움

우리말이 어렵다고들 한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하는 말만은 아니다. 우리 자신이 종종 탄식처럼 그렇게 말하곤 한다. 어떤 이는 호칭이 어렵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경어법이 까다롭다고도 한다. 그러나 그게 어디 우리만 겪는 일이라? 어느 나라 말이건 명쾌하지 않은 빈칸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모호하여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을 터이다. 그것은 말 자체의 근원적 어려움일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런 어려움 외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표준어 규범이 그것이다. 왜 이것이 문제인가? 표준어 규범과 언어 현실이 서로 다를 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말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국어사전을 뒤적일라치면 평소에 쓰던 말이 비표준어로 올라 있는 경우를 자주 경험한다. 또, 시중에 무수히 나도는 ‘우리말 바로 쓰기’류의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형편없는 표준어 실력에 깜짝 놀라기까지 한다. 한마디로 규범에 맞는 언어 생활이 쉽지 않은 것이다.

표준어는 때때로 그렇게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언어 관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똥맞은 모습으로 거드름을 피우기도 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으박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위압하듯 ‘맹송맹송’ 대신 ‘맨송맨송’을 쓰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거들먹거리며 ‘오손도손’은 비표준어이고 ‘오순도순’이 표준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 입과 귀에 익은 말은 ‘맨송맨송’, ‘오순도순’이 아니고 ‘맹송맹송’, ‘오손도손’임을 어찌하라? 오로지 규범이라는 이유로 ‘맨송맨송’과 ‘오순도순’을 써야 한다면 참으로 곤혹스럽다. 아니, 고통스럽다.

규범과 언어 관습의 충돌 — 이 불화를 어찌할 것인가? 이 글은 그에 대한 필자 나름대로의 대답이다. 먼저 언어 현실과 규범 사이의 괴리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살펴보고, 표준어에 대한 반성을 거쳐 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2. 규범과 현실 괴리의 실상

먼저 표준어 규범과 언어 현실의 괴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자. 필자는 규범과 현실의 괴리가 빛나는 양상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2.1. 규범어(‘규’로 표시)와 현실어(‘현’으로 표시)가 비교적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경우¹⁾

곰살긋다(규)/곰살맞다(현)

성미가 부드럽고 정이 많음을 나타내는 말로, 두 단어는 서로 의미상의

1) 여기서 대등하다고 하는 것은 사용 빈도가 서로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 빈도는 균형을 갖춘 코퍼스가 아닌 웹 사이트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부정확할 수도 있다. 이는 2.2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2.1.과 2.2의 예는 경우에 따라 서로 바뀔 수도 있다. 한편, 규범어 여부의 판단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준거한 것이다.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전부터 “잔재미가 있는 곰살궂은 성미를 가졌다.”(이기영-두만강)와 같이 ‘곰살궂다’가 쓰여 왔으나 근래에 들어 “출랑대는 모습이 곰살맞아 보였다.”(윤중혁-캠브리지에서)와 같이 ‘곰살맞다’도 세력을 상당히 얻고 있다.

복사빠(규)/복숭아빠(현)

‘복사’는 ‘복숭아’의 준말인데도, 기이하게 ‘복숭아빠’는 그동안 규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복사’는 현대 국어에서 자립적인 말로는 거의 쓰이지 못하고 합성어로나 겨우 쓰이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복사빠’보다 ‘복숭아빠’를 더 친숙하게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섬뜩하다(규)/섬찐하다(현)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움을 느낄 때 쓰는 말로, 이 두 단어는 의미가 거의 비슷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칼날이 목덜미에 닿았을 때는 섬찐하기보다는 섬뜩한 것 같은 느낌도 든다. 그런가 하면 ‘섬찐 놀라다’는 가능해 보이는데 ‘섬뜩 놀라다’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영큼하다(규)/응큼하다(현)

둘 다 음흉한 속셈이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나, ‘영큼하다’보다 ‘응큼하다’가 더 음흉스럽게 느껴진다. 그래서인지 ‘영큼한 남자’라고 했을 때 보다 ‘응큼한 남자’라고 했을 때 비난의 강도가 더 센 것 같다.

떨어뜨리다(규)/떨구다(현)

의미상의 차이를 발견하기는 어렵고, 호응하는 말이 다소 차이가 있을 법하다. 일반적으로는 ‘떨어뜨리다’가 폭넓게 쓰이나 ‘고개’나 ‘눈물’ 등과의 호응에서는 ‘떨구다’가 좀 더 쓰이는 듯하다.

굽실거리다(규)/굽신거리다(현)

남의 비위를 맞추면서 지나치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근래에는 ‘굽신거리다’가 ‘굽실거리다’보다 좀 더 사용 빈도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소곤소곤(규)/소근소근(현)

비밀스럽게 뭔가 속삭이는 모양을 가리키는 말로,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아직은 모음조화를 따른 ‘소곤소곤’이 다소 우세해 보이거나 ‘소근소근’도 널리 쓰이고 있다.

2.2. 규범어가 현실어보다 현저히 사용 빈도가 낮은 경우

오순도순(규)/오손도손(현)

의종계 살아가는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둘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그런데 모음조화 규칙으로 보나 사용 빈도로 보나 ‘오손도손’이 훨씬 많이 쓰이는 말인데도 ‘오순도순’만이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다.

만날(규)/맨날(현)

달라지지 않고 늘 그 타령일 때 쓰는 말로, ‘만(萬)+날 [日]’이라는 어원 때문에 ‘만날’이 규범어가 되었다. 하지만 ‘만날’은 ‘맨날’에 비해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용 빈도가 낮다.

야멸치다(규)/야멸차다(현)

태도가 인정사정없이 매섭고 차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규범어인 ‘야멸치다’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언중들은 ‘매물차다’의 ‘-차다’에 이 끌려 ‘야멸차다’를 사용하는 것 같다.

맨송맨송(규)/맹송맹송(현)

술을 마셨는데도 정신이 말짱하거나 뭔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서운할 때 쓰는 말로, ‘맹송맹송’이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규범어인 ‘맨송맨송’은 거의 쓰이지 않을 뿐 아니라 발음하기조차 어렵다.

바둥바둥(규)/바둥바둥(현)

팔이나 다리를 내저으며 안간힘을 다하여 움직이거나 일을 성취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사용하는 말로, ‘바둥바둥’이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키(규)/이크(현)

놀람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만화나 소설의 대화문에서 주로 쓰이는 말인데, 규범어인 ‘이키’는 그 용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3. 제약적 영역에서 현실어가 쓰이는 경우

날개(규)/나래(현)

새나 곤충 등이 날 때 사용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로, ‘날개’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나래’는 ‘상상의 나래를 펴다’와 같이 문학적 표현에서 주로 쓰인다.

냄새(규)/내음(현)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냄새’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내음’은 ‘향긋한 꽃 내음’과 같이 시적인 표현에서 주로 쓰인다.

네(규)/니(현)

2인칭 대명사 ‘너’는 일정한 조건에서 ‘네’가 되는데, 구어에서는 거의 ‘니’로 쓰인다. 현대 국어에서 모음 ‘네’와 ‘니’가 점차 중화되어 가고 있어, ‘네’와 ‘내’를 구별하기 어려워진 것도 ‘니’의 사용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피다(규)/꼬시다(현)

상대를 교묘하게 부추켜 자기 생각대로 이끄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는 ‘피다’를 사용하나 속된 어감을 가진 표현으로는 ‘꼬시다’를 사용한다. 특히, 여자를 사귀려고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행동을 가리킬 때에는 ‘피다’보다는 ‘꼬시다’를 압도적으로 사용한다.

예쁘다(규)/이쁘다(현)

‘예쁘다’는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이고, ‘이쁘다’는 구어에서 좀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다.

원수(규)/웬수(현)

해를 입혀 원한을 맺게 한 존재를 가리키는 말로, ‘원수’가 보편적인 말이고 ‘웬수’는 구어적이면서 때로 익살스러운 말이다.

2.4. 규범어와 현실어가 의미가 다소 다르거나 분화된 경우

눈초리(규)/눈꼬리(현)

현행 규범은 눈초리만을 규범어로 인정하고 있으나, 두 말은 서로 의미가 다른 말로 분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즉, ‘눈초리’는 대상을 바라볼 때 눈에 나타나는 날카롭거나 사나운 표정을 가리키고, ‘눈꼬리’는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끝 부분을 가리킨다.

졸리다(규)/졸립다(현)

졸음을 느낀다는 점에서 두 말은 의미적으로 구별하기 어려우나, ‘졸리다’는 동사, ‘졸립다’는 형용사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리다/그립다, 놀라다/놀랍다’ 등과 대비된다.

다르다(규)/틀리다(현)

“자, 보세요. 이건 물건이 틀리다니까요.”라고 말할 때, 규범은 ‘틀리다’는 잘못이고 ‘다르다’가 옳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르다’는 단순히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반면, ‘틀리다’는 다르되 비교 대상보다 우월하게 다름을 나타낸다.

어수룩하다(규)/어리숙하다(현)

이 두 말은 의미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수룩하다’가 어리석음과 순박함을 다 가진 데 반해 ‘어리숙하다’는 어리석음만 가진 느

낌이 있다.

2.5. 현실어로 존재하나 아직 규범어로 오르지 못한 경우

손주

현재 ‘손주’는 ‘손자’의 잘못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손자’와 ‘손녀’의 통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손주’는 정감이 어린 말로 느껴진다. “어이구 내 손주!”라고 할 때, ‘손주’를 ‘손자’나 ‘손녀’로 바꾸면 왠지 말맛이 나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고프다

‘고 싶다’가 줄어서 ‘-고프다’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가고파’, ‘보고픈 임의 얼굴’ 등이 그것이다. 현행 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문학적 표현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먹거리

현재 ‘먹거리’는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먹을거리’를 한 단어로 보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의미적으로도 ‘먹거리’와 그리 동질적이지 않다. 즉, ‘먹거리 장터/먹거리 문화’를 ‘먹을거리 장터/먹을거리 문화’로 바꾸기 어렵다. 동사 어간과 ‘거리’가 직접 결합하기 어렵다는 조어법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나,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하는 조어 방식은 ‘눅더위/감발/늪바람’ 등에서와 같이 국어에 드물지 않다.

맛빼기

현재 ‘맛빼기’는 ‘맛보기’의 잘못으로 되어 있다. ‘맛보기’는 맛만 보기 위해 조금 먹어 보는 음식을 가리킨다. 그런데 양을 줄이는 대신에 특별히 맛을 낸 음식은 ‘맛빼기’라고 부른다. ‘설렁탕 맛빼기’가 그것이다.

푸름

‘푸름’의 가장 큰 문제는 조어상의 결합이다. 즉, ‘푸름’은 ‘푸르-+ -ㅁ’이 아닌 ‘푸르르-+ -ㅁ’의 결합에서 온 것이므로, 일단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말은 오래 전부터 시어로 쓰여 왔는데 마땅한 대체어가 없어서인지(‘푸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녹음’은 말맛이 달라진다) 지금도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잊혀지다

이 말은 이중 피동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잊혀진 계절’, “나는 그때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를 ‘잊힌 계절’, ‘잊어지지(또는 잊히지) 않는다’로 바꾸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중 피동의 문제도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표준어 규범이 언어 현실을 포용하지 못한 채 괴리를 보일 때가 많다.²⁾ 실상이 이러하다면 이제라도 표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보아야 한다.

3. 표준어에 대한 반성

표준어 문제를 반성하기에 앞서, 표준어의 역사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 표준어가 도입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조선어학회에서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한 이후 그 후속 작업으로서 1936년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간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표준어 규범이다. 그러나 이 책자에 담고 있는 어휘는 불과 9,50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말을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뒤 선별적으로 다룬 것

2) 위의 예는 극히 일부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괴리가 전체적인 규모로는 어느 정도인지, 또 언중들이 언어 생활에서 얼마나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지 광범위한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었다. 따라서 이는 표준어 규범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완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내지 예비 작업의 성격이 강했다. 그 완성은 자연스럽게 국어사전 쪽에 넘겨졌다. 따라서 한글학회의 ‘큰사전’(1957년)에 이르러서야 표준어 규범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전들이 간행되면서 사전끼리 표준어 규범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고 이에 정부가 나서서 ‘표준어 규정’(1988년)을 고시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이것 역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경우처럼 2,000개도 안 되는 소수의 말만을 다룸으로써 완성의 몫은 다시 국어사전에 넘겨졌고, 국가 사전인 ‘표준국어대사전’(1999년)이 간행되기 전까지 국어사전들은 또다시 규범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을 요약하자면, 우리의 표준어는 ‘표준어 모음 → 국어사전 → 표준어 규정 → 국어사전 → 표준국어대사전’의 순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성문법적 정신이다. 즉, 어떤 단어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일일이 명시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문법의 태도를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성문법으로 인간의 언어 생활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맨송맨송’을 규범어로 정해 놓았는데도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벌금을 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처벌을 가할 것인가? 말의 사용을 가지고 언중에게 강제성을 발동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말은 변화를 그 속성으로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말의 뜻이 바뀌기도 하고 같은 대상을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한다. 또, 말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시나브로 사라진다. 가령, 김승옥의 단편 소설인 ‘서울, 1964년 겨울’(1965년)에 ‘선술집/비어홀/사환/외교원3)/양품점/군참새’ 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말들은 나이 든 사람의 머릿속이나 남아 있을 뿐 이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불과 40년 전에 생생하게 쓰이던 말이 오늘은 박물관의 언어가 된 것이다. 정녕 성문법으로 고정시켜 놓기 어려운 것이 말

3) ‘외판원’과 같은 뜻인데, 오늘날 이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성문법적인 표준어가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일상 언어의 어휘를 일일이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갈라 규범을 강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북한 말고 또 있는지 필자는 알지 못한다. 많은 나라들이 표준어라는 관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느슨하고 유연한 것 같다. 즉, 대체로 암묵적이고 관습적이다. 우리처럼 표준어 규정을 정해 놓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정 작업을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가령, 영국 표준 영어라고 했을 때, 이는 런던 상류층의 언어를 가리키며 다른 지역이나 계층의 영어와 구별 짓는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 그 구별 기준도 딱 부러지게 명쾌하거나 단일하지 않다. 영어에는 요지부동의 성문법적 표준 규범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전거를 들거나 규정을 들먹여 ‘이것이 표준 영어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표준 영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막연하고 모호한 모습으로 존재할 뿐이다. 기껏해야 BBC 방송 아나운서가 사용하는 말은 표준 영어일 것이라고 상정하는 정도다. 그렇다면 명시적 표준어 규범의 부재가 영어에 혼란을 부를까? 그렇기는커녕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어휘와 다채로운 표현을 자랑하고 있다.

문제는 오히려 규범이 까다롭고 엄격한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언어를 규범과 비규범으로 양단하는 이분법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표준어는 맞는 말이고 우월한 말이며, 비표준어는 틀린 말이고 열등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념에 매여 있는 한, 풍요롭고 기름진 언어 문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말의 다양성을 박탈당한 채 획일화된 표현만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급한 문학과 섬세한 정신이 가능하겠는가? 이제라도 이런 미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땅에서 쓰이는 모든 말들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 그 말들은 제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가진다. 거기에 우열은 없다. 말마다의 구실이 다를 뿐이다. ‘응큼하다’는 ‘영큼하다’의 열등하고 잘못된 말이 아니라, 다른 빛깔과 울림을 갖는 독립적인 말이다. ‘나래’는 버려져야 할 말이 아니라 문학적 감성을 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운치 있는 말이다.

어느 사회든 주류의 말과 비주류의 말이 있을 수 있다. 영국 영어에서 런던 말이 그러하듯 국어에서 서울말은 주류의 말이다. 그러나 주류의 말이 우월한 말은 아니다. 다만, 한 나라 안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보편적인 말일 뿐이다. 방언은 비주류의 말이지만 열등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비록 사용의 제약성이 있긴 하지만 지역민의 삶이 응축된 소중한 우리말이다. 방언에는 또한 표준어가 가지기 어려운 강한 정서적 환기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주류의 말에 열심히 가위표를 치고 있다. 국어사전을 보라. 가위표가 얼마나 난무하는가를. 비주류어가 틀린 말이라는 오명을 달고 도처에 지뢰처럼 박혀 있다. 그런 영향 때문에 일부 국어 운동가들은 문학 작품에서까지 방언을 열심히 색출(?)하여 문인들의 규범 의식이 형편없다고 개탄한다. 그러나 표준어로 다듬어진 김영랑의 시를 상상해 보라. 이문구의 소설을 서울말로 바꾸어 읽어 보라. 그 순간 문학은 증발해 버리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표준어 우월주의에 깊이 매몰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4. 대안의 모색

그렇다면 표준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 실마리를 어쭙게나마 더듬을 양이면 다음 두 가지 길이 있다. 제1안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고 제2안은 표준어 규정 자체를 아예 폐기하는 것이다.

제1안은 현행 규정은 가급적 그대로 두되 복수표준어를 지금보다 훨씬 확대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는 서울 지역의 교양인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은 최대한 표준어로 받아들여자는 것으로, ‘현 표준어+새 표준어’ 방안이다. 이 안은 현행 규정은 거의 손대지 않기 때문에 규정 폐기에서 오는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필자가 제기한 표준어 문

제를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안을 택하는 한, 여전히 ‘표준어=맞는 말, 비표준어=틀린 말’이라는 이분법 속에 갇혀 있어야 한다.

어쨌든 제1안을 택한 경우에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그리 녹록지 않다. 여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 즉, 표준어 재사정의 기초 작업, 본작업, 결과 공표 등을 각각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것이다.

먼저 기초 작업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치밀한 언어 현실 조사야말로 표준어 재사정 작업의 기초를 확고히 세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려고 할 때 언어 현실(또는 언어 세력)은 매우 중요한 기준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언어 현실을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근자에 이르러 주목받고 있는 코퍼스 언어학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코퍼스(말뭉치)는 특정 단어의 언어 세력을 살피는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코퍼스는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포함된 어절 수가 절대치 이상의 크기를 가져야 한다. 최근 영국의 몇몇 사전 편찬 업체에서는 코퍼스를 3억~5억 어절까지 구축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에 가까운 규모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⁴⁾ 또한 코퍼스는 문어뿐만 아니라 구어까지도 담고 있어야 한다. 구어 코퍼스는 문어 코퍼스보다 구축하기가 기술적으로 더 까다롭기는 하지만 온전한 표준어 재정비를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다음은 표준어 사정의 본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가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사정 작업 참여자를 결정해야 한다. 국어학자를 비롯한 문인, 언론인 등을 중심적 참여자로 하되, 영역별 전문가를 자문 기구로 두는 방법을 하나의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

4) 영어 코퍼스와 우리말 코퍼스의 규모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영어와 국어는 언어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영어는 전치사나 관사를 독립적으로 띄어 쓰지만 국어는 조사를 모두 체언에 붙여 쓴다. 따라서 어절 수를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다. 다만, 영어권에서 구축한 규모가 참고될 수는 있을 것이다.

나 사정 규모가 커지면 이런 모델은 택하기 어렵고 대신 실무형 작업자(예컨대 석·박사급 국어 전공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표준어 사정 기준을 정해야 한다. 언어 현실 조사 자료를 일차 선정 기준으로 삼되, 문법적 타당성이나 지역 방언 여부 등을 검토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어떤 단어가 일정 기준의 절대 빈도나 상대 빈도를 가지고 있되, 문법적 타당성이 있고 지역 방언이 아닐 경우 표준어로 선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셋째, 사정 어휘 규모를 정해야 한다. 그 규모는 사정 작업의 접근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현행 표준어는 동결하고 문제가 될 만한 것만 선택적으로 검토할 경우 어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고, 우리말 어휘 전체를 재사정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어휘 규모는 매우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정 작업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표할 것인가이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그 하나는 사전의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 목록 형태로 공표하는 것이다. 전자는 국립국어연구원원이 이미 국어사전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전을 개정할 때 조정된 표준어 내용을 반영하면 되는 방식이다. 이는 사전 개정을 통해 표준어를 조정하므로 표준어 문제를 따로 떼어서 다룰 때보다는 사회적 저항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표준어 규범의 내용을 따로 떼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후자는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목록화하여 공표하는 방법이다. 이는 사전과 같은 뜻풀이 정보가 없이 목록만을 제시하므로 표준어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표준어 규범이 단어 층위가 아니라 뜻갈래와 같은 섬세한 부분에서 이뤄질 때 그것을 사전만큼 심도 있게 다루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⁵⁾

제2안은 표준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예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는 방식이다.⁶⁾ 이 안은 표준어와 비표준어의 이분법을 지양하

5) 이 경우 아쉬운 대로 비교란을 두어 간단한 의미 주석을 달 수는 있다.

6) 이것은 완전한 언어 무규범과는 다르다. 언어에 최소한의 규범은 필요하다. 특히, 문자 표준어라고 할 수 있는 맞춤법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만일, ‘있음/있슴, 승낙/승

자는 데 강조점이 있다. 즉, 말을 더 이상 규범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맞는 말과 틀린 말로 가르지 말자는 것이다. 말은 어떤 이유로든 그 사용을 억압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안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세상에는 맞는 말과 틀리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두루 쓰이는 보편어와 제한적으로 쓰이는 제약어가 있을 뿐이다. 이는 얼핏 보편어는 표준어로, 제약어는 비표준어로 비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은 어느 정도 외연이 겹칠지 모르나 서로 그다지 대응 관계에 있지 않다. 부연하자면 보편어는 사용 지역이나 주체나 장면에 제약성이 없는 말을 가리키고, 제약어는 그러한 제약성이 있는 말을 가리킨다. 국어사전에는 일반적으로 속어, 비어, 은어, 유아어, 심마니말, 방언 같은 특수어들이 있는데 이들 말이 제약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문어, 문어, 구어, 시어 등도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에서 제약어라 할 수 있다. 이 안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깔고 우리 생활에서 쓰이는 모든 말을 다 살려 쓰자는 입장에서 있다. 그리하여 ‘복숭아뼈/굽신굽신/맹송맹송/간지럽히다’ 등은 보편어로, ‘내음/푸르름/니/웬수/꼬시다’ 등은 제약어로 보되 규범적 판단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자는 것이다.7)

제2안이 가지는 커다란 미덕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의 제고에 있다. 티브이 토크쇼의 사회자가 새봄을 스케치하면서 비표준어를 피하기 위해 “거리에 봄 내음이 가득하네요.”라고 말하지 못하고 ‘봄 내음’을 ‘봄 냄새’라든가 ‘봄 향기’로 고쳐 써야 한다면 얼마나 어설픈 일이겠는가? 또, 드라마에서 “자식이 아니라 웬수야, 웬수.”라는 대사를 “자식이 아니라 윈수야, 윈수.”로 바꿔야 한다면 과연 드라마의 생생한 분위기와 구어적 말맛을 제

락, 비전/비전’ 등의 표기가 혼재한다면 그 혼란이 얼마나 크겠는가?

- 7) 이렇듯 규범이 해체될 때 국어사전의 풀이가 종전보다 훨씬 더 섬세해질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비규범어는 ‘○○’의 잘못으로 처리했을 뿐, 그 단어 특유의 의미를 제시할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가령, ‘내음/나래’ 등이 ‘냄새/날개’와 어떻게 다른지 섬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 ‘징하다’와 같은 방언도 억지스럽게 ‘징그럽다’로 규범화하지 않고 그만의 독특한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대로 살릴 수 있겠는가? 이들 말을 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우리말 표현의 다양화와 언어 선택의 자유다.

그런데 이러한 미덕은 제1안을 잘 살릴 경우에도 웬만큼 확보할 수 있다. 복수표준어를 최대화하면 될 테니까 말이다. 제2안만이 가지는 진정한 미덕은 언어 현실과 규범의 괴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진다는 점이다. 제1안으로는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메우기 어려우며 설령 메웠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시 괴리는 생길 수밖에 없다. 제2안은 현실과 규범의 이항대립을 무너뜨림으로써 양자 사이에 가로놓인 숙명적 갈등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에 맞닥뜨린다. 하나는 제2안이 표준어 관념을 완전히 폐기한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표준어 규범을 버리고도 정말 아무런 혼란이 없을 것인가이다.

첫째 의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 ‘아니다’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보는 생각은 제2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는 마치 성문법적 표준어 규정이 없으면서도 표준어 관념은 엄연히 존재하는 영어의 경우와 흡사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 때의 표준어는 불확정적이고 모호할 수밖에 없다. 성문법이 사라졌으므로 그 존재를 구체적 텍스트 속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교과서의 글이라든가 방송 아나운서의 말에서 표준 한국어를 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규범과는 절연된 것이다. 맞는 말로서가 아니라 격조 있고 우아한 말로서의 표준어인 것이다.

둘째 의문은 대답이 쉽지 않다. 70년 동안이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배했던 규범이 사라지고도 아무 혼란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일 것이다. 표준어 규범의 폐기가 ‘맞는 말/틀린 말’이라는 이분법의 결연한 파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이분법에 매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억압이었을지라도 우리에게 명확한 기준과 정답을 제시해 준 규범을 갈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미혹한 관성에서 헤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맞는 말인가?’라는 닫힌 질문에서 ‘무엇이 더 적절한 말인가?’라는

열린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열린 질문이야말로 우리말을 보다 풍요롭고 다채롭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5. 맺음말

약 70년 전 맞춤법과 표준어 규범이 만들어진 것은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였다. 우리의 선각들은 비극적 국권 상실 시대에 우리말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민족의 혼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다. 그 신념 하나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견디면서 우리말을 가꾸고 다듬기 위해 열정을 불살랐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처럼 반듯하게 정비된 말을 누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표준어는 경직성과 편협성의 늪에 빠져 있다. 말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표준어 규범이 이제는 말의 다양성을 해치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다. 이런 역설적 상황은 기실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성문법적 규범은 필연적으로 언어 현실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동태적 언어와 정태적 규범이 어찌 부딪치지 않을 수 있으랴? 말을 법으로 묶어 놓는 일은 애당초 무망한 일이었다.

그런데 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할 규범조차도 사실은 끊임없이 동요를 일으켜 왔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배운 표준어가 졸업 후에 달라진 것이 한둘이 아니었고, 국어사전 속의 표준어가 몇 년 안 가서 또다시 바뀌었으며, 사전끼리 표준어 처리가 서로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마침내 사전끼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어문 규범을 통일했다는 국가 사전이 나오고 나서도 여전히 표준어 규범이 완성되었다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규범을 만드는 일 자체도 참으로 지난한 일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반성을 토대로 필자는 표준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접근해 보았다. 제1안은 현행 표준어 규정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고, 제2안은 표준어 규정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제1안은 규정을 폐지하는 데서 오는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표준어=맞는 말, 비표준어=틀린 말’이라는 이분법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규범과 현

실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반해 제2안은 현실과 규범의 이항 대립을 원천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과연 규범 부재로 인한 혼란이 전연 없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를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이 글이 논의의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이 두 안을 발전적으로 극복한 제3의 진테제가 활발히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